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루킬리아노스와 성 파블라 순교자

마태오 제1주일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루킬리아스, 성 파블라 순교자

제8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찬양송 / 269, B 341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시기송 / 269, B 341
- 사도경 : 히브리 11,33-12, 2 / 269, 봉독서 114
- 복음경 : 마태오 10, 32-33, 37-38, 19, 27-30 / 108, B 3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루킬리아노스와 동료 순교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3세기애 한 노인과 네 명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성 루킬리아노스와 함께 크라브디오스, 이파티오스, 디오니시오스 그리고 파블로스 이들 다섯 명의 순교자들을 6월 3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들 곁에는 파블라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성 루킬리아노스와 동료들의 장사를 지내다 체포됩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

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열정과 용기,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고백했고 기꺼이 사형 집행자들의 칼 아래 그들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참하느님이 아니시고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순교는 아주 어리석고 혀된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 해야 할 우리의 일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9,1-5)

눈먼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온 인류를 상징하며,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의 삶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암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빛을 받아 암흑의 세계에서 벗어나 밝게 빛나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개어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에게 이르시자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요한 9:6-7)

이 모습은 천지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침을 땅에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발라주는 모습은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이며, 실로암 못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물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광명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눈이 멀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비참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눈을 뜨고 광명을 찾은 후에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심을 깨닫고 우리의 일

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세례받고 광명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세례받았을 때의 그 빛나는 광명을 잊게 된다. 이때마다 회개하며 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죄로부터 회복되어 주님의 빛 속에서 머물게 된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광명 속에서 살아가려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듯이 빛을 전하는 일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낮 동안에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다. 밤이 오면 즉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눈이 먼 상태로 소경이 태어났듯이 우리 각자는 주님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일을 만인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을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주여, 우리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트리폰 수도원장



“하느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투쟁에서 회개는 중심에 있는 주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회개 할 때에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맨 처음 하느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신화(神化)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이리저리 깨지고 부서졌기에 우리는 하느님과 분리되었으며, 우리의 어두워진 정신(nous, 누스)으로는 하느님을 분명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키며, 주님과 완전한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이로써 우리가 (깨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 회개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신적인 빛이나 기적, 예언, 영적인 선물 따위는 구하지 말고 오직 회개만을 구하십시오. 회개로 말미암아 겸손을 얻게 될 것이고, 겸손으로 인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는 당신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돋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스 성산의 파이시오스 성인)

▶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사도 축일 금식 시작

올해는 6월 4일 월요일부터 사도 축일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금식 기간에는 생선이 허용됩니다.(축일표를 참조해주십시오.) 금식 기간을 잘 지키면서 사도 축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입구 도로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도원 건물 증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총 공사비는 27,000,000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 043247- 13- 601

.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5월 26일 영혼 토요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성찬예배가 거행되었고 계속해서 추도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중국에서 온 이신박(안토니오스) 교우와 슬라브 민족의 마리아 사프사이 유아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생활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 봄 바자회 결산

지난 5월 27일 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성당 앞 마당에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년처럼 찾아오셔서 한국,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특히, 정교회를 처음 접하고 알게 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교인분들이 참여하면서 풍성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장년회와 슬라브어 사용 신자들, 신데즈모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봄 지역 음식 바자회

지난 5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2018년도 봄 지역 음식 바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녀회, 청년회 및 원로회가 전통 음식을 조리하여 교우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게 좋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셔서, 봄 바자회가 보다 더 뜻 깊고 화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성당 공동체의 합심과 협력 정신이 보다 더 향상되었고 따뜻한 친교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